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부산지역 대졸예정자의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 분석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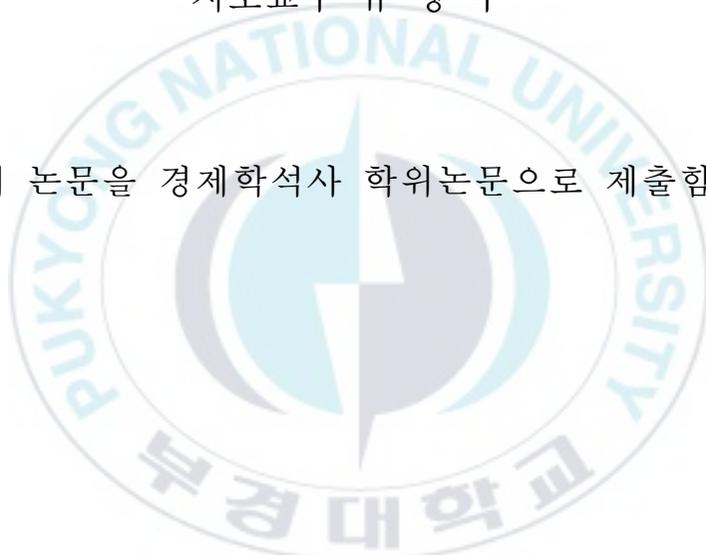
이 지 현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부산지역 대졸예정자의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 분석

지도교수 류 장 수

이 논문을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과

이 지 현

이지현의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2월 일



주 심 경제학박사 최 홍 봉 인

위 원 경제학박사 류 장 수 인

위 원 행정학박사 권 오 혁 인

〈표 차례〉

<표 3-1> 부산지역 경제활동인구 변화	12
<표 3-2> 전국 및 서울지역 경제활동인구 변화	13
<표 3-3> 부산지역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15
<표 3-4> 전국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16
<표 3-5> 서울지역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16
<표 3-6> 부산지역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18
<표 3-7> 전국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19
<표 3-8> 서울지역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20
<표 3-9> 부산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21
<표 3-10> 전국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22
<표 3-11> 서울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23
<표 3-12> 부산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24
<표 3-13> 전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25
<표 3-14>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26
<표 3-15> 부산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변화	28
<표 3-16> 전국 및 부산지역 청년층의 성별 취업자 수 변화	29
<표 4-1> 부산지역 대학별 설문지 할당부수 및 회수부수	30
<표 4-2> 표본의 구성 : 응답자 개인 특성	32
<표 4-3>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의 주된 이유	33
<표 4-4> 최근 취업한 직업의 종류	34
<표 4-5> 최근 취업한 직장의 주 업종	35
<표 4-6> 최근 취업한 직장의 종업원 규모	36
<표 4-7> 최근 취업한 직장의 월평균 임금	36
<표 4-8> 취업 및 창업 희망 여부	37

<표 4-9> 직업교육훈련 희망여부에 따른 응답자 특성	39
<표 4-10> 직업교육훈련 희망 분야	40
<표 4-11> 직업교육훈련 희망 훈련기관	41
<표 4-12> 직업교육훈련 선호하는 훈련방법	42
<표 4-13> 직업교육훈련 희망 기간	42
<표 4-14> 희망 직업교육훈련 분야와 전공 및 희망업종의 연관성	43
<표 4-15> 직업교육훈련 희망분야 선택사유	44
<표 4-16> 월평균수입 중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비중	45
<표 4-17>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45
<표 4-18> 변수정의 및 설명	47
<표 4-19>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 : 교육비용부담주체 및 전공 더미	48
<표 4-20>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 : 근로경험 중사상지위 더미, 가구월평균소득더미	50
<표 4-21> 직업교육훈련 결정요인 :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52

*Analysis of Determinant of Vocational Education
About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ing Student In Busan*

Ji-Hyun Lee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was prepared to identify whether graduates-to-be of two-year colleges and four-year colleges in Busan have experience of working during their college days and completion of a vocational education course, and to review the influence of personal features and such experiences on the determination of the demand of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aimed at those students. Young people and graduates-to-be come to enter into labor market through diverse experiences including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es, studying language abroad,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course of preparing themselves to find a job, and this thesis analyzed the level of interest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graduates-to-be, and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sel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imed at graduates-to-be attending a total of eight two-year colleges and four-year colleges in Busan, the thesis conducted a research survey from August to October 2005 and collected a total of 753 copies of questionnaires. It was shown from the research that out of students who desire to receiv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re was greater demand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rom males rather than females, from graduates-to-be whose major is engineering, and from graduates-to-be of two-year colleges rather than ones from four-year colleges.

When reviewing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the deman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t was shown that sex, person in charge of education and training costs, and the monthly average family income level were significantly influential in the determination based on all respondents. For graduates-to-be of two-year colleges, a person in charge of education and training costs and the monthly average family income level were significantly influential to the determination, and for graduates-to-be of four year colleges, sex and person in charge of education and training costs were significantly influential to the determination. It was also found from this that experiences during college days such as educational background, major, working experience, and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e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demand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eywords: labor market in Busan, labor market for young people in Busan, graduates-to-b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eterminants of the deman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부산지역 대졸예정자의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 분석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외환위기 이후로 노동시장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청년층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에게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청년층, 특히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휴학이나 어학연수 등을 통해 졸업을 기피하고 경제가 회생되어 취업기회가 호전되면 졸업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흐름에 대비하여 자격증 취득, 직업교육훈련 이수, 인턴쉽 참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각한 실업에 직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고용정책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 부서 내에 노동정책과를 설립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노동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노동정책과의 주요 업무는 취업정보센터 관리 운영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 사업 진행, 국내 및 국외 취업

알선,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및 해외인턴 알선 등 고용정책의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결정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직업교육훈련'은 정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기업체, 정부, 학원, 공공훈련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교육, 컴퓨터 일반교육훈련 및 CAD/CAM, 3D와 같은 컴퓨터기반 전문교육훈련 분야, 정보기술자격증 관련 전문교육훈련 분야, 창업 및 개인서비스사업 자격증 관련 훈련, 이공계열의 기술분야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등의 기타 훈련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부산지역 대졸예정자들의 취업 및 직업훈련 수요파악을 위한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부산지방노동청과 부경대학교가 수행한 공동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 졌다. 설문조사는 2005년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전문대 및 4년제 24개 대학 가운데 10개 대학(4년제 5개, 2년제 5개)을 선정하고, 10개 대학의 졸업예정자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각 학교별 2004년 졸업생수에 비례하도록 1,150부를 차등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남녀 성별 비중은 1:1로 하였으며, 조사 진행과정 중 학내사정상 조사가 어려운 4년제 대학 1개와 2년제 대학 1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대학에서 2005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각 대학 학과별로 2005년도 졸업예정자 가운데 무작위로 3~5부씩의 설문 조사지를 분류하여 넣은 다음, 각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각 학과별로 위탁하여 설문조사 해 줄 것을 의뢰하여 이루어 졌다. 8개 학교를 통해 배포된 총 900부의 설문지 중 최종 수거부수는 753부, 회수율은 83.7%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2. 논문구성

본 논문은 전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정 및 성과, 취업준비노력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부산지역의 노동시장 현황 및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의 규모 및 현황을 살펴보고, 2년제 이상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2005년 9월~10월에 실시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응답자 특성을 파악한다. 성별, 학력, 전공 등의 개인특성과 일자리 경험 여부, 직업교육훈련 희망 여부 등에 대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기술통계량을 살펴볼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부산지역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한다.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여 직업교육훈련 희망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학력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결과에서 도출되는 유의미한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 특성을 파악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2년제 이상 대졸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더라도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청년층 고용사정이 질적인 면에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졸자 및 대졸예정자들은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을 통해 대학졸업 전부터 활발하게 원하는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취업준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자격증 취득 및 직업교육훈련 등의 취업준비활동이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성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진 실업률이 2000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회복이 느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실업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은 중·장년층에 비해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근로생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이 길거나 첫 일자리 경험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할 경우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어 장기적으로는 경력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에 따라 기존에 실시된 인적자본투자마저 무의미해질 수 있다.(Ellwood, 1982; Corcoran, 1982; 이병희, 2002; 이병희 외, 2004)

이병희(2001)의 연구는 1998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실업을 경험한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경력 형성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이 학교에서 첫 일자리로의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불일치가 심각하여 실업상태에 있거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무직으로 남아 있는 유희인력 규모가 2000년 현재 청년층 전체인구의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겪는 불안정한 노동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경험이 많은 청년의 경우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력이 누적될수록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한 청년층은 경력간 이동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빈번한 노동이동이 경력일치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엽·홍서연(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3차조사(2000년)의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전후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미취업기간이 장기화할수록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낮아지는 음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의 미취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위기 이전의 졸업자가 취업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가 청년층의 첫 일자리 취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전 졸업자를 표본으로 한 추정결과는 상대적으로 노동수요가 하락할수록 첫 일 자리를 취득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를 표본으로 한 추정 결과는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첫 일자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제의를 받아들일게 되어 실업률이 미취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에 음의 효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병희(2002)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청년용 부가조사자료(2000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후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미취업의 장기화는 취업경험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을 저해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년층의 취업준비 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학교와 노동시장 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 취업연수,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실업대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학교-기업 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어학 연수, 인턴쉽 참가, 자격증 취득, 직업교육 이수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행 전에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통해 인적자원을 축적한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몇 차례 진행된 바 있다(이병희, 2002, 2003; 채창균, 2002; 최영섭, 2002; 김우영, 2002; 장순희·박성재, 2002; 김안국, 2002, 2003).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과 자격증에 대한 교육투자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친 영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은 첫 직장으로의 이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다만 자격증만이 현 직장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우영, 2002; 김안국, 2003). 재직근로자와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투자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실업자, 전직희망자,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erry et al., 1976; Couch, 1992). 반면 이상은(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와 20~24세 청년에게는 직업훈련이 취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용·김용현(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02년 10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재학중 학원·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근로경험 등과 같은 취업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첫 일자리의 이행기간이나 임금 등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자의 경우, 학원·직업훈련 이수율 제외하고 자격증 취득 및 재학중 근로경험이 미취업 탈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취업준비 노력이 양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미취업 탈출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출신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층이 재학 중 경험하는 다양한 노력 등이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년제 대졸자가 경험한 재학 중 취업준비 노력들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2005)의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1차,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회귀모형 분석에서 전체적으로는 직업훈련의 취업 증가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 및 20~24세의 연령에 해당되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직업훈련의 취업 증진 효과가 나타났으며, 고졸자들에 있어서는 직업훈련의 취업증진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근로소득 효과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이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이 생산성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본 연구 결과는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이 청년층의 생산성 또는 인적자본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성재(2005)의 연구에서는 2002년 2월 국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3년 12월을 시점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취업준비 노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취업준비 시기는 대부분 졸업을 앞둔 해와 졸업시점이었으며, 청년층의 취업준비 활동은 외국어학원을 포함한 교육훈련 참가, 자격증 취득, 외국어시험 응시,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등 다양했으며, 취업준비 유형은 학력 및 전공별로 상이하였다. 교육훈련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는 외국어 외에도 기술교육훈련의 비율이 높았으나, 대졸자는 외국어 교육 비율이 높았다. 자격증 취득은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득비율이 높았으며, 전공에 따라 살펴보면 이공자연계열은 국가기술자격을 주로 취득하였고, 교육의학계열은 국가자격, 인문사회계열은 민간(공인)자격을 취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득한 자격증과 전공의 일치여부는 전문대 졸업자일수록,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공자연계열과 교육의학계열일수록 일치확률이 높았다. 일자리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문대와 대졸자 모두 시간제 일자리 경험이 높은 편이었으나 전문대 졸업자가 현장실습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과 무관하게 재학 중 일자리경험 및 취업준비 활동은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 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교육훈련이 취업확률을 높이지 못하였지만 전공과 일치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업확률이 높아지며, 일자리 경험은 정규직과 현장실습 외에 시간제 일자리 경험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청년층이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여러가지 노력들은 대체로 취업에 유의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일한 취업준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평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졸예정자들의 취업준비 노력 중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 3 장 부산지역 노동시장 및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부산지역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수요 및 수요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전에,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산지역 노동시장 및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전국 및 서울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산지역 노동시장 현황

본 절에서는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함께 전국 및 서울지역 노동시장의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부산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291만 4천 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69만 8천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58.3%에 해당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생산가능인구는 약 1만 명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약 1만 8천여 명 증가하였음을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중 두드러지는 점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 약간 상승하였으나 2006년 1/4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291만 4천명으로 2004년에 비해 약 1만 명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00년부터 2006년 2/4

분기 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2006년 1/4분기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2/4분기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75만 7천명에서 2006년 3/4분기에는 170만 4천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는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6년 3/4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163만 2천명이었던 취업자 수는 2002년에 170만 4천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3년 161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점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6년 3/4분기 163만 3천명으로 2003년 이전과 비슷한 수치로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01년과 2002년을 비교해보면 약 4만여 명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24만 1천 명으로 2002년의 116만 명에 비해 약 8만 명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03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5%로 2002년의 60.5%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04년에 58.0%, 2005년에 58.3%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변동폭이 남자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의 여건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 부산지역 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체	남자	여자			
2000	2947	1757	1632	113	1204	59.2	72.4	47.1	55.3	6.5	
2001	2945	1743	1645	99	1201	59.2	72.0	47.5	55.9	5.7	
2002	2933	1773	1704	70	1160	60.5	72.9	49.0	58.1	3.9	
2003	2919	1679	1610	69	1241	57.5	70.7	45.4	55.2	4.1	
2004	2904	1686	1612	73	1218	58.0	71.0	46.1	55.5	4.4	
2005	2914	1698	1624	74	1216	58.3	70.6	46.9	55.7	4.3	
2006	1/4	2920	1693	1624	69	1227	58.0	70.1	46.9	55.6	4.1
	2/4	2912	1703	1627	77	1209	58.5	71.0	47.0	55.9	4.5
	3/4	2910	1704	1633	71	1206	58.6	70.9	47.2	56.1	4.2
증 감 ('00~'06)	-37	-53	1	-42	2	-0.6	-1.5	0.1	0.8	-2.3	
증감율 ('00~'06)	-1.3	-3.0	0.1	-37.2	0.2	-1.0	-2.1	0.2	1.4	-35.4	

주 : 1) 15세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는 제외

2)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전국 및 서울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까지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264만 8천명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197만 9천명이 증가하였다. 15세 이상 인구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표 3-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전국의 취업자 수는 215만 8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18만 명 감소하였다. 전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사이에 1.5%p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1.1%p 감소하였다.

<표 3-2> 전국 및 서울지역 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체	남자	여자			
전 국	2000	36186.0	22134.0	21156.0	979.0	14052.0	61.2	74.4	48.8	58.5	4.4	
	2001	36579.0	22471.0	21572.0	899.0	14108.0	61.4	74.3	49.3	59.0	4.0	
	2002	36963.0	22921.0	22169.0	752.0	14042.0	62.0	75.0	49.8	60.0	3.3	
	2003	37339.5	22956.5	22138.8	817.7	14383.0	61.5	74.7	49.0	59.3	3.6	
	2004	37716.9	23417.0	22557.1	859.9	14299.9	62.1	75.0	49.9	59.8	3.7	
	2005	38299.5	23742.8	22856.1	886.7	14556.7	62.0	74.6	50.1	59.7	3.7	
	2006	1/4	38592.8	23491.9	22577.3	914.5	15100.9	60.9	73.3	49.1	58.5	3.9
		2/4	38730.1	24225.0	23409.0	816.0	14505.2	62.5	74.7	51.0	60.4	3.4
		3/4	38834.2	24112.6	23313.9	798.6	14721.6	62.1	74.3	50.5	60.0	3.3
증 감 ('00~'06)		2648.2	1978.6	2157.9	-180.4	669.6	0.9	-0.1	1.7	1.5	-1.1	
증감율 ('00~'06)		7.3	8.9	10.2	-18.4	4.8	1.5	-0.1	3.5	2.6	-25.0	
서 울	2000	8015.0	4917.0	4668.0	250.0	3097.0	61.3	74.6	48.8	58.2	5.1	
	2001	8042.0	4965.0	4727.0	237.0	3078.0	61.7	74.5	49.6	58.8	4.8	
	2002	8038.0	4999.0	4783.0	216.0	3039.0	62.2	75.3	49.7	59.5	4.3	
	2003	8027.0	4980.9	4752.7	228.2	3046.1	62.1	74.8	50.0	59.2	4.6	
	2004	8038.5	5067.5	4830.7	236.8	2971.0	63.0	75.1	51.6	60.1	4.7	
	2005	8115.1	5135.4	4889.7	245.7	2979.8	63.3	75.3	52.0	60.3	4.8	
	2006	1/4	8154.7	5141.9	4878.2	263.7	3012.9	63.1	74.8	51.9	59.8	5.1
		2/4	8160.4	5146.7	4927.4	219.2	3013.7	63.1	74.9	51.9	60.4	4.3
		3/4	8164.6	5108.3	4889.5	218.8	3056.3	62.6	74.4	51.4	59.9	4.3
증 감 ('00~'06)		149.6	191.3	221.5	-31.2	-40.7	1.3	-0.2	2.6	1.7	-0.8	
증감율 ('00~'06)		1.9	3.9	4.7	-12.5	-1.3	2.1	-0.3	5.3	2.9	-15.7	

주 : 1) 15세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는 제외

2)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서울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사이에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업자 수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3만 1천명, 4만 명 감소하였다.

부산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국 및 서울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는 조사기간 내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부산지역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 및 서울지역에 비해 부산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산지역의 연령별 취업자 추이를 <표 3-3>에서 살펴보면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취업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19세의 취업자는 경기변동 및 전체 인구변동과 관계없이 2000년 3만 3천명에서 2003년 1만 8천여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50-59세 및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15-29세 청년층은 2000년부터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에 37만 2천명이었던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2년 37만 7천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03년 32만 9천명, 2004년 31만 5천명, 2005년 30만 1천명으로 점점 감소하였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비중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2006년에는 40-49세, 50-59세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9세, 30-39세 취업자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표 3-3> 부산지역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29세 (청년층)
2000	1632 (100.0)	33 (2.0)	339 (20.7)	442 (27.1)	464 (28.4)	252 (15.4)	103 (6.3)	372 -
2001	1645 (100)	29 (1.8)	333 (20.2)	447 (27.2)	475 (28.9)	252 (15.3)	109 (6.6)	361 -
2002	1704 (100)	28 (1.6)	348 (20.4)	448 (26.3)	484 (28.4)	267 (15.7)	129 (7.6)	377 -
2003	1610.1 (100)	18.7 (1.2)	310.8 (19.3)	425.1 (26.4)	476.3 (29.6)	269.1 (16.7)	110.1 (6.8)	329.6 -
2004	1612.4 (100)	17.2 (1.1)	298.6 (18.5)	411.6 (25.5)	483.7 (30.0)	276.8 (17.2)	124.5 (7.7)	315.8 -
2005	1623.8 (100)	17.4 (1.1)	283.6 (17.5)	408.8 (25.2)	482.7 (29.7)	295.6 (18.2)	135.6 (8.4)	301 -
2006	1/4 1624.1 (100)	16.5 (1.0)	275.5 (17.0)	405.6 (25.0)	485 (29.9)	305.4 (18.8)	136.1 (8.4)	292 -
	2/4 1626.6 (100)	19 (1.2)	268.2 (16.5)	402.6 (24.8)	479.4 (29.5)	316 (19.4)	141.5 (8.7)	287.2 -
	3/4 1632.7 (100)	18 (1.1)	276.4 (16.9)	396.6 (24.3)	476.1 (29.2)	320.3 (19.6)	145.4 (8.9)	294.4 -
증 감 ('00~'06)	0.7	-15	-62.6	-45.4	12.1	68.3	42.4	-77.6
증감률 ('00~'06)	0.0	-45.5	-18.5	-10.3	2.6	27.1	41.2	-20.9

주 : () 안의 수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전국의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15-19세의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에 38만 9천명이었던 15-19세 취업자 수는 2006년 3/4분기에 22만 명으로 약 17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 비해 43.4% 감소하였다. 20-29세의 취업자 수 또한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일부 반영하는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4> 전국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29세 (청년층)	
전 국	2000	21156.0 (100.0)	389.0 (1.8)	4490.0 (21.2)	6137.0 (29.0)	5277.0 (24.9)	2899.0 (13.7)	1963.0 (9.3)	4879.0 -	
	2001	21572.0 (100.0)	358.0 (1.7)	4457.0 (20.7)	6167.0 (28.6)	5561.0 (25.8)	2959.0 (13.7)	2071.0 (9.6)	4815.0 -	
	2002	22169.0 (100.0)	313.0 (1.4)	4486.0 (20.2)	6212.0 (28.0)	5856.0 (26.4)	3098.0 (14.0)	2204.0 (9.9)	4799.0 -	
	2003	22138.8 (100.0)	271.7 (1.2)	4334.4 (19.6)	6185.8 (27.9)	6031.2 (27.2)	3173.6 (14.3)	2142.0 (9.7)	4606.1 -	
	2004	22557.1 (100.0)	258.1 (1.1)	4320.1 (19.2)	6181.2 (27.4)	6206.2 (27.5)	3334.1 (14.8)	2257.4 (10.0)	4578.2 -	
	2005	22856.1 (100.0)	243.0 (1.1)	4206.6 (18.4)	6121.9 (26.8)	6304.6 (27.6)	3599.3 (15.7)	2380.7 (10.4)	4449.6 -	
	2006	1/4	22577.3 (100.0)	243.1 (1.1)	4084.3 (18.1)	6093.6 (27.0)	6301.4 (27.9)	3640.0 (16.1)	2214.9 (9.8)	4327.4 -
		2/4	23409.0 (100.0)	200.0 (0.9)	4070.9 (17.4)	6193.9 (26.5)	6450.2 (27.6)	3887.4 (16.6)	2606.5 (11.1)	4270.9 -
		3/4	23313.9 (100.0)	220.0 (0.9)	4060.2 (17.4)	6123.8 (26.3)	6417.0 (27.5)	3888.6 (16.7)	2604.3 (11.2)	4280.2 -
	증 감 ('00~'06)		2157.9	-169	-429.8	-13.2	1140	989.6	641.3	-598.8
증감율 ('00~'06)		10.2	-43.4	-9.6	-0.2	21.6	34.1	32.7	-12.3	

주 : () 안의 수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서울지역의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의 취업자 수 변화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지역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15-19세 취업자 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20-29세 취업자 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50-59세 이상 취업자와 60세 이상 취업자는 각각 15만 2천명, 11만 2천명 증가하여 고령자 노동시장이 2000년에 비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서울지역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29세 (청년층)	
서 구	2000	4668.0 (100.0)	100.0 (2.1)	1194.0 (25.6)	1310.0 (28.1)	1144.0 (24.5)	646.0 (13.8)	273.0 (5.8)	1294.0 -	
	2001	4727.0 (100.0)	88.0 (1.9)	1167.0 (24.7)	1322.0 (28.0)	1182.0 (25.0)	655.0 (13.9)	313.0 (6.6)	1255.0 -	
	2002	4783.0 (100.0)	69.0 (1.4)	1137.0 (23.8)	1336.0 (27.9)	1226.0 (25.6)	673.0 (14.1)	342.0 (7.2)	1206.0 -	
	2003	4752.7 (100.0)	63.8 (1.3)	1103.5 (23.2)	1346.4 (28.3)	1252.2 (26.3)	676.0 (14.2)	310.8 (6.5)	1167.3 -	
	2004	4830.7 (100.0)	60.2 (1.2)	1088.8 (22.5)	1353.9 (28.0)	1282.8 (26.6)	708.0 (14.7)	337.0 (7.0)	1149.0 -	
	2005	4889.7 (100.0)	58.0 (1.2)	1066.1 (21.8)	1346.4 (27.5)	1297.2 (26.5)	761.2 (15.6)	360.7 (7.4)	1124.1 -	
	2006	1/4	4878.2 (100.0)	62.2 (1.3)	1033.1 (21.2)	1338.9 (27.4)	1298.7 (26.6)	783.1 (16.1)	362.2 (7.4)	1095.3 -
		2/4	4927.4 (100.0)	52.5 (1.1)	1015.6 (20.6)	1346.4 (27.3)	1324.3 (26.9)	804.2 (16.3)	384.4 (7.8)	1068.1 -
		3/4	4889.5 (100.0)	51.7 (1.1)	1001.0 (20.5)	1337.2 (27.3)	1317.0 (26.9)	797.8 (16.3)	384.8 (7.9)	1052.7 -
	증 감 ('00~'06)		221.5	-48.3	-193.0	27.2	173.0	151.8	111.8	-241.3
증감율 ('00~'06)		4.7	-48.3	-16.2	2.1	15.1	23.5	41.0	-18.6	

주 : () 안의 수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취업자들 중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문이 서비스·판매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에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까지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부문과 사무직 종사자 수는 증가한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별 취업자 추이와 함께 봤을 때,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업종 종사자의 증가가 주로 전문직종 및 사무직 종사자의 증가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부산지역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	
2000	1632 (100.0)	265 (16.2)	185 (11.3)	492 (30.1)	28 (1.7)	662 (40.6)	
2001	1645 (100.0)	258 (15.7)	194 (11.8)	499 (30.3)	22 (1.3)	672 (40.9)	
2002	1704 (100.0)	280 (16.4)	200 (11.7)	532 (31.2)	20 (1.2)	672 (39.4)	
2003	1610.1 (100.0)	265.3 (16.5)	238.6 (14.8)	469.2 (29.1)	26.2 (1.6)	610.9 (37.9)	
2004	1612.4 (100.0)	283.9 (17.6)	236.9 (14.7)	471.7 (29.3)	26.8 (1.7)	592.9 (36.8)	
2005	1623.8 (100.0)	291.4 (17.9)	254 (15.6)	464.2 (28.6)	23 (1.4)	591.3 (36.4)	
2006	1/4	1624.1 (100.0)	311 (19.1)	255.5 (15.7)	438.1 (27.0)	23.7 (1.5)	595.8 (36.7)
	2/4	1626.6 (100.0)	307.3 (18.9)	249.3 (15.3)	451.4 (27.8)	21.1 (1.3)	597.5 (36.7)
	3/4	1632.7 (100.0)	312 (19.1)	254.7 (15.6)	454.7 (27.8)	20.7 (1.3)	590.6 (36.2)
증감 ('00~'06)	0.7	47.0	69.7	-37.3	-7.3	-71.4	
증감율 ('00~'06)	0.0	17.7	37.7	-7.6	-26.1	-10.8	

주 : () 안의 수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표 3-7>과 <표 3-8>의 전국 및 서울지역의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현상으로 사무직 종사자와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증가와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사무직은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까지 약 76만 명 증가하였으며,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108만 5천명 증가하였다. 반면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는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까지 총 29

만 4천명이 감소하여 13.4%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표 3-7> 전국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조립·단순노무직	
전 국	2000	21156.0 (100.0)	3942.0 (18.6)	2512.0 (11.9)	5500.0 (26.0)	2115.0 (10.0)	7087.0 (33.5)	
	2001	21572.0 (100.0)	4102.0 (19.0)	2671.0 (12.4)	5656.0 (26.2)	2035.0 (9.4)	7109.0 (33.0)	
	2002	22169.0 (100.0)	4262.0 (19.2)	2822.0 (12.7)	5796.0 (26.1)	1964.0 (8.9)	7325.0 (33.0)	
	2003	22138.8 (100.0)	4439.5 (20.1)	3172.1 (14.3)	5570.4 (25.2)	1833.8 (8.3)	7122.8 (32.2)	
	2004	22557.1 (100.0)	4631.0 (20.5)	3188.3 (14.1)	5643.3 (25.0)	1700.0 (7.5)	7394.5 (32.8)	
	2005	22856.1 (100.0)	4775.3 (20.9)	3269.0 (14.3)	5624.7 (24.6)	1708.4 (7.5)	7478.7 (32.7)	
	2006	1/4	22577.3 (100.0)	4917.6 (21.8)	3283.8 (14.5)	5583.7 (24.7)	1398.8 (6.2)	7393.5 (32.7)
		2/4	23409.0 (100.0)	4998.0 (21.4)	3274.8 (14.0)	5593.4 (23.9)	1821.7 (7.8)	7721.1 (33.0)
		3/4	23313.9 (100.0)	5027.2 (21.6)	3275.2 (14.0)	5562.5 (23.9)	1831.3 (7.9)	7617.7 (32.7)
	증 감 (‘00~’06)		2157.9	1085.2	763.2	62.5	-283.7	530.7
증감율 (‘00~’06)		10.2	27.5	30.4	1.1	-13.4	7.5	

주 : () 안의 수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서울지역의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3/4 분기 사이에 사무직과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각각 13만 1천명, 11만 5천명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판매직은 약 5만 명 감소하였다.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부산 지역 및 전국, 서울지역의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감소는 도소매·음식 숙박업 종사자 수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8> 서울지역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조립·단순노무직	
서 비 예	2000	4668.0 (100.0)	1339.0 (28.7)	648.0 (13.9)	1292.0 (27.7)	10.0 (0.2)	1379.0 (29.5)	
	2001	4727.0 (100.0)	1362.0 (28.8)	665.0 (14.1)	1295.0 (27.4)	7.0 (0.1)	1398.0 (29.6)	
	2002	4783.0 (100.0)	1363.0 (28.5)	699.0 (14.6)	1295.0 (27.1)	9.0 (0.2)	1417.0 (29.6)	
	2003	4752.7 (100.0)	1398.5 (29.4)	791.7 (16.7)	1248.1 (26.3)	5.7 (0.1)	1308.8 (27.5)	
	2004	4830.7 (100.0)	1427.4 (29.5)	781.8 (16.2)	1256.4 (26.0)	5.9 (0.1)	1359.2 (28.1)	
	2005	4889.7 (100.0)	1442.8 (29.5)	764.2 (15.6)	1263.8 (25.8)	4.2 (0.1)	1414.6 (28.9)	
	2006	1/4	4878.2 (100.0)	1448.2 (29.7)	780.5 (16.0)	1249.5 (25.6)	4.2 (0.1)	1395.7 (28.6)
		2/4	4927.4 (100.0)	1485.3 (30.1)	758.5 (15.4)	1240.0 (25.2)	5.4 (0.1)	1438.2 (29.2)
		3/4	4889.5 (100.0)	1470.4 (30.1)	763.3 (15.6)	1244.4 (25.5)	5.5 (0.1)	1406.0 (28.8)
	증 감 (‘00~’06)		221.5	131.4	115.3	-47.6	-4.5	27.0
증감율 (‘00~’06)		4.7	9.8	17.8	-3.7	-45.0	2.0	

주 : () 안의 수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부산지역의 전체 취업자 수는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표 3-9>을 통해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및 광공업,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에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농림·어업 및 광공업의 취업자 수가 각각 1만 7천명, 7만 7천명 감소하였으며, 42.3%p, 20.1%p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00년에 비해 7.7%에 해당하는 9만 3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3-9> 부산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전체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창고.금융	
2000	1632	39	384	384	1210	120	500	385	205	
2001	1645	31	372	372	1241	118	517	399	207	
2002	1704	29	365	365	1310	126	546	434	203	
2003	1610.1	31.5	323.5	323.2	1255.1	129.8	516.4	409.6	199.4	
2004	1612.4	29.9	304.8	304.8	1277.6	128.7	504.8	433.7	210.4	
2005	1623.8	24.9	297.8	297.2	1301	122.4	497.4	463.4	217.8	
2006	1/4	1624.1	26.1	306.6	306	1291.4	121.3	472.4	476.7	221
	2/4	1626.6	23.4	302.2	301.5	1301	126.2	480.6	482.7	211.5
	3/4	1632.7	22.5	306.8	305.7	1303.4	117.3	491.8	480.5	213.7
증 감 (‘00~’06)	0.7	-16.5	-77.2	-78.3	93.4	-2.7	-8.2	95.5	8.7	
증감율 (‘00~’06)	0.0	-42.3	-20.1	-20.4	7.7	-2.3	-1.6	24.8	4.2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전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까지 215만 8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261만 3천명 증가하였고 이 중 건설업 취업자 수가 27만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 취업자 수가 210만 명 증가하는 등 타 산업에 비해 큰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림어업 및 광공업 취업자 수는 각각 30만 6천명, 15만 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산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와 비슷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전국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전체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 창고. 금융
전 국	2000	21156.0	2243.0	4310.0	4293.0	14603.0	1580.0	5752.0	5195.0	2076.0
	2001	21572.0	2148.0	4285.0	4267.0	15139.0	1585.0	5874.0	5540.0	2141.0
	2002	22169.0	2069.0	4259.0	4241.0	15841.0	1746.0	5998.0	5940.0	2157.0
	2003	22138.8	1949.5	4221.8	4204.8	15967.4	1815.7	5852.2	6139.2	2160.3
	2004	22557.1	1824.5	4306.0	4290.1	16426.5	1819.8	5862.4	6557.8	2186.5
	2005	22856.1	1815.4	4251.3	4234.2	16789.4	1814.4	5806.2	6923.3	2245.5
	2006	1/4	22577.3	1491.5	4205.5	4188.6	16880.4	1725.7	5799.5	7056.4
2/4		23409.0	1952.3	4199.1	4180.6	17257.6	1903.5	5775.7	7255.8	2322.6
3/4		23313.9	1937.1	4160.3	4142.8	17216.5	1848.8	5733.9	7297.5	2336.3
증 감 ('00~'06)		2157.9	-305.9	-149.7	-150.2	2613.5	268.8	-18.1	2102.5	260.3
증감율 ('00~'06)		10.2	-13.6	-3.5	-3.5	17.9	17.0	-0.3	40.5	12.5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서울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또한 전국 및 부산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사이에 25%에 해당하는 약 3천명이 감소하였으며, 광공업 전체 및 제조업은 16.3%에 해당하는 15만 명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 건설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 취업자 수는 각각 18.8%, 25.3%에 해당하는 7만 명, 36만 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와 전국 및 서울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와 광공업 전체 및 제조업 종사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 취업자 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부산지역의 경우 2.3% 감소한데 비해 전국 및 서울지역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17.0%, 18.8% 증가하여 그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3-11> 서울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전체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 창고. 금융
서울	2000	4668.0	10.0	893.0	892.0	3764.0	350.0	1478.0	1417.0	519.0
	2001	4727.0	9.0	870.0	867.0	3848.0	364.0	1468.0	1488.0	528.0
	2002	4783.0	10.0	838.0	835.0	3935.0	386.0	1471.0	1563.0	515.0
	2003	4752.7	6.5	786.3	786.2	3960.0	406.4	1465.6	1572.6	515.3
	2004	4830.7	5.0	803.0	802.3	4022.6	412.6	1434.6	1652.5	522.9
	2005	4889.7	5.3	791.6	790.7	4092.8	417.6	1424.5	1727.4	523.2
	2006	1/4	4878.2	5.4	760.9	760.1	4111.9	414.0	1419.0	1750.9
2/4		4927.4	8.7	753.1	752.2	4165.6	436.0	1420.1	1784.6	524.9
3/4		4889.5	7.5	747.5	746.5	4134.6	415.8	1419.0	1774.9	524.9
증 감 ('00~'06)		221.5	-2.5	-145.5	-145.5	370.6	65.8	-59	357.9	5.9
증감율 ('00~'06)		4.7	-25.0	-16.3	-16.3	9.8	18.8	-4.0	25.3	1.1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표 3-12> 부산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전체	비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2000	1632.0	521.0	401.0	119.0	449.0	493.0	169.0	
2001	1645.0	526.0	406.0	120.0	460.0	476.0	182.0	
2002	1704.0	534.0	420.0	114.0	480.0	468.0	222.0	
2003	1610.1	488.5	398.5	90.0	475.3	475.6	170.6	
2004	1612.4	486.3	399.3	87.1	492.5	458.2	175.3	
2005	1623.8	485.7	398.7	87.0	504.3	455.1	178.7	
2006	1/4	1624.1	472.2	390.9	81.3	522.2	452.1	177.6
	2/4	1626.6	468.4	386.3	82.0	535.6	445.4	177.2
	3/4	1632.7	470.7	389.8	80.9	537.0	449.0	175.9
증 감 (‘00~’06)	0.7	-50.3	-11.2	-38.1	88.0	-44.0	6.9	
증감율 (‘00~’06)	0.0	-9.7	-2.8	-32.0	19.6	-8.9	4.1	

주 : 1)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3) 자영업주 = 고용주 + 자영자

4) 임금근로자 = 상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5) 상시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총괄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 보면 전체 취업자 수에 대비하여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수는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시근로자 수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나 2000년에 비해서 2005년의 취업자 수는 크게 줄었다. 반면에

상용근로자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또한 미세하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를 <표 3-13>을 통해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 종사자 수가 약 38만 명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가 약 19만 명 감소하였다. 반면에 상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와 비교해 봤을 때 전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데 비해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표 3-13> 전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전체	비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전체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전 국	2000	21156.0	7795.0	5864.0	1931.0	6395.0	4608.0	2357.0
	2001	21572.0	7913.0	6051.0	1863.0	6714.0	4726.0	2218.0
	2002	22169.0	7988.0	6190.0	1797.0	6862.0	4886.0	2433.0
	2003	22138.8	7736.4	6042.6	1693.8	7269.2	5003.5	2129.6
	2004	22557.1	7663.0	6109.8	1553.2	7624.7	5081.7	2187.7
	2005	22856.1	7670.8	6172.3	1498.6	7917.2	5055.7	2212.3
	2006							
	1/4	22577.3	7358.9	6011.9	1346.9	8054.1	5037.6	2126.7
	2/4	23409.0	7721.8	6196.6	1525.1	8157.0	5199.9	2330.4
	3/4	23313.9	7759.4	6208.3	1551.2	8240.0	5145.8	2168.7
증 감 ('00~'06)		2157.9	-35.6	344.3	-379.8	1845.0	537.8	-188.3
증감율 ('00~'06)		10.2	-0.2	1.6	-1.8	8.7	2.5	-0.9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표 3-14>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전체	비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전체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서울	2000	4668.0	1407.0	1139.0	268.0	1341.0	1347.0	573.0	
	2001	4727.0	1423.0	1165.0	259.0	1411.0	1342.0	552.0	
	2002	4783.0	1434.0	1185.0	250.0	1413.0	1336.0	599.0	
	2003	4752.7	1419.8	1173.3	246.5	1572.1	1280.4	480.4	
	2004	4830.7	1400.3	1180.8	219.5	1617.4	1298.8	514.2	
	2005	4889.7	1368.0	1154.8	213.2	1640.0	1328.5	553.3	
	2006	1/4	4878.2	1342.6	1126.3	216.4	1709.3	1294.0	532.2
		2/4	4927.4	1338.3	1128.7	209.6	1719.7	1298.6	570.8
		3/4	4889.5	1314.1	1109.6	204.5	1715.7	1293.3	566.4
증 감 (‘00~’06)		104.7	28.2	23.8	4.4	36.8	27.7	12.1	
증감율 (‘00~’06)		2.2	0.6	0.5	0.1	0.8	0.6	0.3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서울지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사이에 비임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었으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임시근로자의 경우 2005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통계자료를 통해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현황을 전국 및 서울지역 노동시장 현황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전국 및 서울지역과는 변화 추이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경제활동인구 변화 및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의 경우, 전국 및 서울지역의 취업자 수의 증감이 각 년도 별로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었으나, 직업별 취업자 수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의 경우 부산지역과 전국 및 서울지역 변화 추이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각

지역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다소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경제활동인구 변화 및 성별 취업자 수 변화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지역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15-29세 청년층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005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73만 8천명으로 2000년 93만 8천명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경제활동인구변화와는 달리 청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00년부터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사이에 15세 이상 인구가 약 22만 명 감소한 데 대해서 경제활동인구는 약 11만 명, 취업자 수는 약 8만 명, 실업자 수는 약 3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 명 감소하였다. 2002년도의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하여, <표 3-11>에서 보는 기간 중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5> 부산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변화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000	938	423	372	51	515	45.1	12.1	
2001	898	405	361	44	493	45.1	10.9	
2002	853	407	377	31	446	47.7	7.6	
2003	809	362	330	33	447	44.7	9.0	
2004	771	350	316	35	421	45.4	9.9	
2005	738	330	301	29	408	44.7	8.8	
2006	1/4	725	319	292	27	406	44.0	8.4
	2/4	716	315	287	27	401	43.9	8.7
	3/4	711	318	294	24	393	44.7	7.5
증 감 ('00~'06)	-227	-105	-78	-27	-122	-0.4	-4.6	
증감율 ('00~'06)	-24.2	-24.8	-21.0	-52.9	-23.7	-0.9	-38.0	

주 : 1) 15세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는 제외

2)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취업자의 성별추이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표 3-16>에서는 전국 청년층 취업자 의 성별추이를 함께 제시하여 비교해보았다. 전국과 부산지역 청년층의 성별 취업자 추이를 비교해보면, 전국 및 부산지역 청년층 모두 남성 취업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여성 취업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청년층의 성별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남성의 취업자 비중이 51.1%로 여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2001년을 지나면서부터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전국 청년층 취업자들의 남녀 비중은 47.4%와 52.6%로 여성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6> 전국 및 부산지역 청년층의 성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

	전국			부산광역시			
	15-29세 청년층	남자	여자	15-29세 청년층	남자	여자	
2000	4879.0	2492.0 (51.1)	2387.0 (48.9)	372.0	185.0 (49.7)	186.0 (50.3)	
2001	4815.0	2408.0 (50.0)	2407.0 (50.0)	361.0	176.0 (48.8)	185.0 (51.2)	
2002	4799.0	2370.0 (49.4)	2429.0 (50.6)	377.0	180.0 (47.7)	197.0 (52.3)	
2003	4606.1	2251.9 (48.9)	2354.2 (51.1)	329.6	152.4 (46.3)	177.1 (53.7)	
2004	4578.2	2202.8 (48.1)	2375.4 (51.9)	315.8	144.8 (45.9)	171.0 (54.1)	
2005	4449.6	2108.4 (47.4)	2341.2 (52.6)	301.0	129.1 (42.9)	171.9 (57.1)	
2006	1/4	4327.4	2043.2 (47.2)	2284.2 (52.8)	292.0	127.1 (43.5)	165.0 (56.5)
	2/4	4270.9	2024.2 (47.4)	2246.7 (52.6)	287.2	125.5 (43.7)	161.7 (56.3)
	3/4	4280.2	2038.8 (47.6)	2241.3 (52.4)	294.4	126.0 (42.8)	168.4 (57.2)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부산지역 청년층의 성별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이미 남성 취업자 비중이 49.7%로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남녀비중은 42.9%와 57.1%로 약 15%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국 청년층의 성별비중 차이보다 3배 정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장 부산지역 대졸예정자의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 분석

1. 조사대상 및 응답자 특성

본 논문에서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부산지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중 8개 대학(경성대, 동서대, 동의대, 신라대, 경남정보대학, 동의공업대학, 동주대학, 부산정보대학)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005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조사한 것으로 표본의 기초통계는 <표 4-2>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과 희망교육훈련, 취업 및 창업경험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¹⁾

<표 4-1> 부산지역 대학별 설문지 할당부수 및 회수부수 (단위 : 명, %)

구 분		할당부수	회수부수	비중
전 체		900	753	100.0
4년제 대학	신라대학교	100	50	6.6
	경성대학교	120	110	14.6
	동의대학교	130	84	11.2
	동서대학교	100	101	13.4
2년제 대학	경남정보대학	150	135	17.9
	부산정보대학	100	96	12.7
	동주대학	100	85	11.3
	동의공업대학	100	92	12.2

1) 류장수 외(2005), 『부산지역 중·장기 인력 및 훈련수요 전망』, 부산지방노동청 연구 결과보고서, 부록 3 참조

조사에 참여한 대졸예정자는 총 753명으로 남학생 379명, 여학생 323명이 답변하였으며, 이 중 성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학생이 51명이었다. 비율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응답비율이 50.3%로 여학생 응답비율 42.9%보다 약간 높았다. 학력을 살펴보면, 2년제 대졸예정자의 응답이 405명으로 4년제 대졸예정자의 응답 345명 보다 60명 많았으며, 무응답자가 3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전공은 공학계열 응답자가 255명(33.9%), 인문계열 응답자가 127명(16.9%), 예술계열 응답자가 63명(8.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자가 62명(8.2%), 무응답자가 112명(14.9%)에 달했다. 조사대상자들 중 편입학을 경험한 자는 30명으로 전체 중 4.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학 중 일자리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2.5%에 해당하는 621명이 일자리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일용근로를 경험한 학생이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의 67.9%를 차지하는 509명이었으며, 임시근로자를 경험한 학생이 119명, 상용근로자를 경험한 학생이 98명, 비임금근로자를 경험한 학생이 4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32%에 해당하는 219명 만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등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이 가장 많았으며 건축산업기사, 제과제빵기능사 및 조리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다음으로는 2년제 및 4년제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희망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총 753명의 응답자 중 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86명으로,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학생 367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 표본의 구성 : 응답자 개인 특성

(단위 : 명, %)

		표본전체	
전체		753 (100.0)	
성별	남성	379 (50.3)	
	여성	323 (42.9)	
연령	24세 이하	508 (67.5)	
	25세 이상	194 (25.8)	
학력	2년제	405 (53.8)	
	4년제	345 (45.8)	
전공	인문	127 (16.9)	
	사회	51 (6.8)	
	이학	44 (5.8)	
	공학	255 (33.9)	
	상학	39 (5.2)	
	예술	63 (8.4)	
	기타	62 (8.2)	
편입학 여부	유	30 (4.9)	
	무	587 (95.1)	
일자리경험 여부	유	전체	621 (82.5)
		비임금근로자	40 (5.3)
		상용근로자	98 (13.0)
		임시근로자	119 (15.8)
	일용근로자	509 (67.9)	
무	132 (17.5)		
자격증취득 여부	유	219 (29.1)	
	무	475 (63.1)	
가구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36 (6.9)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91 (17.4)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51 (28.8)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84 (35.1)	
	500만원이상	62 (11.8)	
직업교육훈련 희망 여부	유	386 (51.3)	
	무	367 (48.7)	

<표 4-3>을 통해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들 중 54%에 해당하는 329명이 '단순히 개인용돈 마련을 위해' 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생계 및 학비조달을 위해' 라고 답변한 학생이 173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공분야의 현장경험을 위해' 라고 답변한 학생이 67명, '앞으로 창업 등을 목적으로' 라고 답변한 학생이 18명으로 취업을 앞두고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14%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3>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의 주된 이유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가족생계 및 학비조달을 위해	173	28.3
개인용돈 마련을 위해	329	53.8
전공분야의 현장경험을 위해	67	10.9
앞으로 창업 등을 목적으로	18	2.9
기타	25	4.1
전체	612	100

한편, 재학 중 근로경험 가운데 최근 취업한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음식서비스 관련직이 27.5%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영업 및 판매관련직이 13/6%,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9.5%, 건설 관련직이 6.6%,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최근 취업한 직업의 종류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관리직	21	3.8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53	9.5
금융/보험 관련직	7	1.3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31	5.6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4	0.7
보건.의료 관련직	6	1.1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	1.4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21	3.8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6	4.7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6	13.6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0	1.8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29	5.2
음식 서비스 관련직	153	27.5
건설 관련직	37	6.6
기계관련직	20	3.6
재료(금속,유리,점토,시멘트) 관련직	8	1.4
화학 관련직	3	0.5
섬유 및 의복 관련직	6	1.1
전기.전자 관련직	15	2.7
정보통신관련직	12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0	1.8
군인	1	0.2
전체	557	100

대졸예정자들이 최근 취업한 직장의 주 업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사

업서비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취업한 직업종류와 직장의 주 업종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대졸예정자들은 음식서비스, 영업판매, 학원강사 또는 과외, 건설일용직 등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4-5> 최근 취업한 직장의 주 업종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광업	1	0.2
제조업	43	7.2
전기/가스/수도사업	13	2.2
건설업	53	8.9
도/소매업	24	4.0
음식/숙박업	125	21.0
운수/창고업	25	4.2
통신업	13	2.2
금융/보험업	8	1.3
사업서비스업	64	10.7
교육서비스업	67	11.2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7	2.9
기타 개인서비스업	143	24.0
전체	596	100

대졸예정자들이 최근 취업을 경험한 직장의 종업원 규모를 살펴보면 47.7%에 해당하는 294명이 5-49명 규모의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으로 35.6%에 해당하는 219명이 1-4명 규모의 직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종업원 수가 적은 소기업 등에서 근로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최근 취업한 직장의 종업원 규모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1-4명	219	35.6
5-49명	294	47.7
50-99명	30	4.9
100-299명	27	4.4
300-999명	23	3.7
1000명 이상	23	3.7
전체	616	100.0

<표 4-7> 최근 취업한 직장의 월평균 임금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100만원 미만	397	66.9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84	31.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9	1.5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	0.2
500만원 이상	2	0.3
전체	593	100.0

대출예정자들이 최근 취업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취업을 경험한 학생들 중 약 67%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학생들 또한 31%에 해당하는 184명이었다. 즉, 취업경험을 통해 높은 임금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취업 및 창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

		취업 희망	창업 희망	둘다 희망하지 않음	전체
전 체		594 (78.9)	116 (15.4)	43 (5.7)	753 (100.0)
성별	남성	282 (74.4)	71 (18.7)	26 (6.9)	379 (100.0)
	여성	266 (82.4)	42 (13.0)	15 (4.6)	323 (100.0)
연령	24세이하	401 (78.9)	75 (14.8)	32 (6.3)	508 (100.0)
	25세이상	147 (75.8)	38 (19.6)	9 (4.6)	194 (100.0)
학력	2년제대학	294 (85.2)	38 (11.0)	13 (3.8)	345 (100.0)
	4년제대학	297 (73.3)	78 (19.3)	30 (7.4)	405 (100.0)
전공별	인문	102 (80.3)	20 (15.7)	5 (3.9)	127 (100.0)
	사회	41 (80.4)	7 (13.7)	3 (5.9)	51 (100.0)
	이학	37 (84.1)	7 (15.9)	0 (0.0)	44 (100.0)
	공학	202 (79.2)	37 (14.5)	16 (6.3)	255 (100.0)
	상경	35 (89.7)	3 (7.7)	1 (2.6)	39 (100.0)
	예능 및 기타	103 (82.4)	17 (13.6)	5 (4.0)	125 (100.0)

한편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대졸예정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예정자가 78.9%로 창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15.4%)이나 둘 다 희망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5.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남정보다는 여성이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8% 정도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4세 이하의 학생들, 즉 나이가 어릴수록 취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2년제 대학 대졸예정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약간 높았다.

2. 직업교육훈련 희망여부와 응답자 특성

본 절에서는 부산지역 대졸예정자들 중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답변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수요결과를 기술통계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교차분석을 통해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직업교육훈련 희망여부에 대한 성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남성 응답자 중 57%에 해당하는 216명이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응답자는 44.6%에 해당하는 144명만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희망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년제 대졸예정자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52.6%에 해당하는 213명으로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4년제 대졸예정자의 경우 345명 중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이 172명,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173명으로 응답자 수와 비중이 큰 차이가 없었다.

전공별로 직업교육훈련의 희망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문, 사회, 이학, 상학 및 예술, 기타계열 전공자들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았으나 공학계열 전공자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9> 직업교육훈련 희망여부에 따른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전체	직업교육훈련 희망	직업교육훈련 비희망	
전체		753 (100.0)	386 (51.3)	367 (48.7)	
성별	남성	379 (50.3)	216 (57.0)	163 (43.0)	
	여성	323 (42.9)	144 (44.6)	179 (55.4)	
학력	2년제	405 (53.8)	213 (52.6)	192 (47.4)	
	4년제	345 (45.8)	172 (49.9)	173 (50.1)	
전공	인문	127 (16.9)	62 (48.8)	65 (51.2)	
	사회	51 (6.8)	21 (41.2)	30 (58.8)	
	이학	44 (5.8)	8 (18.2)	26 (81.8)	
	공학	255 (33.9)	134 (52.5)	121 (47.5)	
	상학	39 (5.2)	19 (48.7)	20 (51.3)	
	예술	63 (8.4)	27 (42.9)	36 (57.1)	
	기타	62 (8.2)	34 (54.8)	28 (45.2)	
편입학 여부	유	30 (4.9)	12 (40.0)	18 (60.0)	
	무	587 (95.1)	298 (50.8)	289 (49.2)	
일자리 경험	유	전체	621 (82.5)	312 (50.2)	311 (49.8)
		비임금근로자	40 (5.3)	27 (67.5)	13 (32.5)
		상용근로자	98 (13.0)	43 (43.9)	55 (56.1)
		임시근로자	119 (15.8)	63 (52.9)	56 (47.1)
		일용근로자	509 (67.9)	257 (50.5)	252 (49.5)
	무	132 (17.5)	56 (42.4)	76 (57.6)	
자격증 취득	유	219 (29.1)	117 (53.4)	102 (46.6)	
	무	475 (63.1)	237 (49.9)	238 (50.1)	
가구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35 (6.7)	14 (40.0)	21 (60.0)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92 (17.6)	54 (58.7)	38 (41.3)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51 (28.8)	86 (57.0)	63 (43.0)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84 (35.1)	82 (44.6)	104 (55.4)	
	500만원이상	62 (11.8)	25 (40.3)	37 (59.7)	

다음으로 근로경험 유무에 따른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희망여부를 살펴보면,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교육 희망자와 비희망자의 비율은 50:50 정도였으며,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는 교육비희망자보다 교육희망자가 약간 더 많았다.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고자 하는 비율이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약간 낮다고 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유무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희망여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3.4%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응답자 수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특징 및 세부 답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분야와 희망 훈련기관 유형, 훈련기간 및 선호하는 훈련방법 등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4-10> 직업교육훈련 희망 분야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훈련분야	145	39.8
컴퓨터 일반교육훈련 분야	27	7.4
컴퓨터 기반 전문교육훈련 분야	52	14.3
정보기술자격증 관련 전문교육훈련 분야	35	9.6
창업 및 개인서비스업 자격증 관련 교육훈련분야	44	12.1
이공계열 기술 분야 자격증 관련 전문교육훈련 분야	51	14.0
기타 교육훈련분야	14	3.8
전체	368	100

먼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가장 선호하는 교육훈련분야는 약 40%의 학생들이 응답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훈련분야 였으며, 컴퓨터 기반 전문교육훈련 분야와 이공계열 기술분야 자격증 관련 전문교육훈련 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대졸예정자들이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훈련분야가 외국어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신입사원 채용 서류 제출에 필요한 TOEIC, TOFLE 등 공인영어시험이나 JPT, JLPT 와 같은 일본어 능력시험, HSK와 같은 중국어 능력시험 등 외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28%에 해당하는 102명의 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직업훈련 시설법인 등의 공공훈련시설을 선택하였으며 사업체훈련시설을 택한 학생이 83명, 학원을 선택한 학생이 7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학을 선택한 학생이 68명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약 20%에 달하고 있다.

<표 4-11> 직업교육훈련 희망 훈련기관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공공훈련시설	102	28.0
민간훈련시설	29	8.0
사업체 훈련시설	83	22.8
대학	68	18.7
학원	72	19.8
기타 기관	14	3.8
전체	368	100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희망하는 교육방법은 교육을 희망하는 368명 중 318명이 선택한 집체교육으로, 사이버교육, 우편 및 통신교육 등의 E-learning보다는 강의실에서 강사와 대면한 교육방법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직업교육훈련 선호하는 훈련방법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집체교육	318	86.4
E-learning	43	11.7
기타	7	1.9
전체	368	100

<표 4-13> 직업교육훈련 희망 기간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1개월	19	5.2
2-3개월	170	46.2
4-6개월	132	35.9
7-12개월	31	8.4
13-24개월	5	1.4
24개월 이상	2	0.5
기타	9	2.4
전체	368	100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2-3개월을 선택한 학생이 170명, 4-6개월을 선택한 학생이 13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은 7명에 불과했다. 전체 중

약 87%가 6개월 미만이 직업교육훈련에 적당한 기간이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와 전공,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와 희망업종 또는 직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최종학교 커리큘럼의 일치여부에 대한 응답문항은 전공일치여부를 파악한다고 해석했을 때 전공과 희망 직업교육훈련 분야가 동일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29.3%에 해당하는 108명이었으며, 약간 일치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93명이었다. 즉, 희망 직업교육훈련 분야가 전공과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81.7%를 차지하고 있었다. 희망업종 또는 희망직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약간 일치한다고 답변한 학생이 17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동일하다는 답변을 선택한 학생이 167명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93.5%를 차지하였다.

<표 4-14> 희망 직업교육훈련 분야와 전공 및 희망업종의 연관성

(단위 : 명, %)

	최종 학교 커리큘럼(전공)	희망업종 또는 직종
전혀 없다	67 (18.2)	24 (6.5)
약간 있다	193 (52.4)	177 (48.1)
동일하다	108 (29.3)	167 (45.4)
전체	368 (100)	

직업교육훈련 희망분야를 선택한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응답한 것을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해당 분야의 직종에 관심이 있어서'라고 답변한 학생이 123명, '취업 또는 창업이 잘 될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학생이 91명, '앞으로 직업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학생이

7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앞으로 직업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학생이 108명,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유사해서'라고 답변한 학생이 66명, '해당 분야의 직종에 관심이 있어서'라고 답변한 학생이 5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 희망분야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앞으로 직업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당 분야의 직종에 관심이 있어서'라는 문항에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희망 업종 또는 희망 직종 분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5> 직업교육훈련 희망분야 선택사유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취업 또는 창업이 잘 될 것 같아서	91 (24.7)	50 (13.6)
자격증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	19 (5.2)	45 (12.2)
훈련받기에 쉬울 것 같아서	8 (2.2)	7 (1.9)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유사해서	49 (13.3)	66 (17.9)
직종에 관심이 있어서	123 (33.4)	56 (15.2)
앞으로 직업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72 (19.6)	108 (29.3)
이전 직업과 관련이 있어서	2 (0.5)	5 (1.4)
기타	4 (1.1)	31 (8.4)
전체	368 (100)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월 평균수입 중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 비중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월평균 수입 중 2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12%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부분은 10% 이상~20% 미만을

투자하겠다고 한 문항이었으며 전체의 37.5%에 해당하는 282명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등의 자기계발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전체 중 83.9%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표 4-16> 월평균수입 중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비중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20% 이상	90	12.0
10% 이상 ~ 20% 미만	282	37.5
5% 이상 ~ 10% 미만	184	24.4
1% 이상 ~ 5% 미만	76	10.1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다	121	16.1
전체	753	100

<표 4-17>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빈도 수	비율
교육훈련을 받아도 능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	25	6.5
개인적으로 교육훈련 필요성 느끼지 못하기 때문	154	39.9
교육훈련보다 생계유지가 우선이기 때문	50	13.0
교육훈련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20	5.2
교육훈련을 받아도 취업가능성이 낮기 때문	79	20.5
기타	58	15.0
전체	386	100

반면에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훈련을 받아도 취업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20.5%에 해당하는 79명이었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교육훈련보다 생계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50명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졸예정자들은 직업교육훈련이 취업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부산지역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 분석

지금까지는 부산지역의 대졸예정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 변수들의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직업교육희망여부(Y)로 하고, 응답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로짓분석을 이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변수는 <표 4-1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성별은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남성더미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학력은 2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4년제 대학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공은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전공더미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편입학 여부에서는 편입학 경험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편입학 경험이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자리 경험은 경험유무에 대한 더미 이외에도 경험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별 더미를 사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4-18> 변수정의 및 설명

변수	변수 표기	정의 및 설명
직업교육훈련 희망 더미	Y	희망=1, 비희망=0
남성 더미	SEX	남성=1, 여성=0
연령 더미	AGE	24세 이하=1, 25세 이상=0
4년제 대학 더미	EDU	4년제=1, 2년제=0
편입학 더미	ADMI	편입학 경험 유=1, 무=0
자격증 취득 더미	LICEN	자격증 취득=1, 미취득=0
사회과학계열 더미	STUDY1	사회과학계열=1, 인문계열=0,
이학계열 더미	STUDY2	이학계열=1, 인문계열=0
공학계열 더미	STUDY3	공학계열=1, 인문계열=0
상학계열 더미	STUDY4	상학계열=1, 인문계열=0
예술 및 기타계열 더미	STUDY5	예술 및 기타계열=1, 인문계열=0
일자리 경험 더미	JOB	일자리경험 유=1, 무=0
일자리경험_비임금근로자	JOB1	비임금근로경험 유=1, 무=0
일자리경험_상용근로자	JOB2	상용근로경험 유=1, 무=0
일자리경험_임시근로자	JOB3	임시근로경험 유=1, 무=0
일자리경험_일용근로자	JOB4	일용근로경험 유=1, 무=0
교육훈련 비용부담주체 - 가족및친지 더미	COST1	가족 및 친지=1, 본인=0,
교육훈련 비용부담주체 - 기업체 더미	COST2	기업체=1, 본인=0,
교육훈련 비용부담주체 - 정부 더미	COST3	정부 및 기타=1, 본인=0,
교육훈련 비용부담주체 - 기타 더미	COST4	무 또는 기타=1, 본인=0,
가구의 월평균소득 - 100~199만원 더미	INC1	월평균소득 100~199만 원=1, 월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0
가구의 월평균소득 - 200~299만원 더미	INC2	월평균소득 200~299만 원=1, 월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0
가구의 월평균소득 - 300~499만원 더미	INC3	월평균소득 300~499만 원=1, 월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0
가구의 월평균소득 - 500만원 더미	INC4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1, 월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0

<표 4-19>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 : 교육비용부담주체 및 전공 더미

변 수	모형 1	모형 2
	B (S.E.)	B (S.E.)
SEX	-0.631 (0.189) ^{***}	-0.650 (0.199) ^{***}
AGE	0.094 (0.226)	0.137 (0.231)
EDU	0.169 (0.186)	0.049 (0.195)
ADMI	-0.397 (0.430)	-0.335 (0.440)
LICEN	-0.317 (0.185) [*]	-0.335 (0.189) [*]
JOB	0.142 (0.235)	0.135 (0.244)
COST1	-0.337 (0.252)	-0.336 (0.263)
COST2	0.713 (0.859)	0.716 (0.868)
COST3	0.485 (0.900)	0.469 (0.908)
COST4	-0.881 (0.270) ^{***}	-0.893 (0.282) ^{***}
STUDY1	-	0.347 (0.361)
STUDY2	-	0.420 (0.402)
STUDY3	-	0.054 (0.247)
STUDY4	-	0.159 (0.437)
STUDY5	-	0.030 (0.285)
상수항	0.162	0.643
-2LogL	808.452	743.315
표본수	753	

주 :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2) 직업교육훈련 결정요인 = $\text{EXP}(Y) / (1 + \text{EXP}(Y))$

3) Y (모형 1) = $(-0.631) \times (\text{SEX}) + (0.094) \times (\text{AGE}) + (0.169) \times (\text{EDU}) + (-0.397) \times (\text{ADMI})$
 $+ (-0.317) \times (\text{LICEN}) + (0.142) \times (\text{JOB}) + (-0.337) \times (\text{COST1}) + (0.713) \times (\text{COST2})$
 $+ (0.485) \times (\text{COST3}) + (-0.881) \times (\text{COST4}) + (0.162)$

Y (모형 2) = $(-0.650) \times (\text{SEX}) + (0.137) \times (\text{AGE}) + (0.049) \times (\text{EDU}) + (-0.335) \times (\text{ADMI})$
 $+ (-0.335) \times (\text{LICEN}) + (0.135) \times (\text{JOB}) + (-0.336) \times (\text{COST1}) + (0.716) \times (\text{COST2})$
 $+ (0.469) \times (\text{COST3}) + (-0.893) \times (\text{COST4}) + (0.347) \times (\text{STUDY1}) + (0.420) \times (\text{STUDY2})$
 $+ (0.054) \times (\text{STUDY3}) + (0.159) \times (\text{STUDY4}) + (0.030) \times (\text{STUDY5}) + (0.643)$

<표 4-19>에서는 교육훈련비 부담주체 더미와 전공 더미를 사용하여 모형 1과 모형 2로 로짓분석을 이행하였다. 모형 1에서는 응답자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성별, 나이, 학력, 편입학유무, 자격증 취득유무, 근로경험 및 교육훈련비용 부담주체 더미를 사용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 사용한 변수에 전공 더미를 추가하여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을 살펴보았다. 모형 1에서 성별은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여부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교육훈련비용 부담주체가 정부 또는 기타기관인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 2의 결과에서도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성별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여부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훈련비용 부담주체가 정부 또는 기타기관인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로써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모형 1과 모형 2를 통해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비해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비용 부담주체가 본인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

: 근로경험 종사상지위 더미, 가구월평균소득더미

변 수	모형 3	모형 4
	B (S.E.)	B (S.E.)
SEX	-0.666 (0.185) ^{***}	-0.664 (0.221) ^{***}
AGE	-0.008 (0.220)	0.014 (0.250)
EDU	0.067 (0.185)	0.104 (0.219)
ADMI	-0.520 (0.407)	-0.441 (0.461)
JOB	0.102 (0.353)	-0.132 (0.408)
LICEN	-0.224 (0.179)	-0.172 (0.206)
JOB1	0.933 (0.394) ^{**}	0.931 (0.432) ^{**}
JOB2	-0.236 (0.277)	0.147 (0.318)
JOB3	0.188 (0.245)	0.187 (0.286)
JOB4	0.117 (0.279)	0.123 (0.316)
INC1	-	0.903 (0.446) ^{**}
INC2	-	0.667 (0.419)
INC3	-	-0.134 (0.410)
INC4	-	-0.084 (0.475)
상수항	0.239	-0.093
-2LogL	811.767	602.563
표본수	753	

주 :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2) 직업교육훈련 결정요인 = $\text{EXP}(Y) / (1+\text{EXP}(Y))$

3) Y (모형 3) = $(-0.666) \times (\text{SEX}) + (-0.008) \times (\text{AGE}) + (0.067) \times (\text{EDU}) + (-0.520) \times (\text{ADMI})$
 $+ (-0.224) \times (\text{LICEN}) + (0.933) \times (\text{JOB1}) + (-0.236) \times (\text{JOB2}) + (0.188) \times (\text{JOB3})$
 $+ (0.117) \times (\text{JOB4}) + (0.239)$

Y (모형 4) = $(-0.664) \times (\text{SEX}) + (0.014) \times (\text{AGE}) + (0.104) \times (\text{EDU}) + (-0.441) \times (\text{ADMI})$
 $+ (-0.172) \times (\text{LICEN}) + (0.931) \times (\text{JOB1}) + (0.147) \times (\text{JOB2}) + (0.187) \times (\text{JOB3})$
 $+ (0.123) \times (\text{JOB4}) + (0.903) \times (\text{INC1}) + (0.667) \times (\text{INC2}) + (-0.134) \times (\text{INC3})$
 $+ (-0.084) \times (\text{INC4}) + (0.239)$

<표 4-20>에서는 근로경험 종사상지위 더미, 가구월평균소득 더미를 사용하여 모형 3과 모형 4로 로짓분석을 이행하였다. 모형 3에서는 응답자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성별, 나이, 학력, 편입학유무, 자격증 취득유무, 근로경험 및 근로경험 종사상지위 더미를 사용하였으며, 모형 4에서는 모형 3에서 사용한 변수에 가구월평균소득 더미를 추가하여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을 살펴보았다. 모형 3에서도 모형 1과 모형 2와 같이 성별은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로경험 시 종사상지위 더미에서는 비임금근로자 더미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양(+)¹⁾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형 4의 결과에서는 모형 3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성별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로경험 시 종사상지위 더미에서는 비임금근로자 더미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양(+)¹⁾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월평균소득 더미 중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 더미는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양(+)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 ~ 모형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성별 더미 변수는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유의미한 음(-)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학력 및 전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력별로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편입학여부, 근로경험, 자격증취득여부, 전공 더미, 교육훈련비용 부담주체 더미, 가구소득수준 더미를 설명변수로 하고 분석대상을 응답자 전체와 2년제 대졸예정자, 4년제 대졸예정자로 나누어 로짓분석을 이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1> 직업교육훈련 결정요인 :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변 수	전 체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B (S.E.)	B (S.E.)	B (S.E.)
SEX	-0.709 (0.237) ^{***}	-0.399 (0.348)	-1.200 (0.376) ^{***}
AGE	0.041 (0.263)	0.162 (0.441)	-0.291 (0.372)
EDU	-0.017 (0.230)	-	-
ADMI	-0.090 (0.509)	-0.632 (0.789)	0.462 (0.718)
JOB	0.133 (0.286)	0.143 (0.400)	0.169 (0.433)
LICEN	-0.215 (0.219)	-0.024 (0.316)	-0.378 (0.326)
STUDY1	0.508 (0.438)	0.267 (0.695)	0.549 (0.597)
STUDY2	0.447 (0.462)	0.051 (1.077)	0.576 (0.553)
STUDY3	-0.126 (0.288)	-0.284 (0.463)	-0.111 (0.421)
STUDY4	-0.058 (0.505)	0.672 (1.172)	-0.245 (0.614)
STUDY5	-0.289 (0.344)	-0.381 (0.481)	-0.115 (0.540)
COST1	-0.199 (0.293)	-0.553 (0.418)	0.259 (0.432)
COST2	0.240 (0.959)	5.843 (15.475)	-0.549 (1.314)
COST3	0.750 (0.933)	0.149 (1.414)	1.198 (1.360)
COST4	-0.846 (0.318) ^{***}	-1.065 (0.458) ^{**}	-0.510 (0.469)
INC1	0.835 (0.472) [*]	0.766 (0.609)	0.999 (0.798)
INC2	0.499 (0.440)	0.550 (0.583)	0.759 (0.734)
INC3	-0.022 (0.439)	-0.185 (0.591)	0.274 (0.707)
INC4	-0.157 (0.505)	-0.506 (0.736)	0.129 (0.776)
상수항	-0.111	-0.126	0.185
-2LogL	565.115	277.266	283.928
표본수	753	405	345

주 :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2) 직업교육훈련 결정요인 = EXP(Y) / (1+EXP(Y))

3) Y (전체) = (-0.709)×(SEX) + (0.041)×(AGE) +(-0.017)×(EDU) + (-0.090)×(ADMI)
 + (0.133)×(JOB) + (-0.215)×(LICEN) + (0.508)×(STUDY1) + (0.447)×(STUDY2)
 + (-0.126)×(STUDY3) + (-0.058)×(STUDY4) + (-0.289)×(STUDY5)

$$\begin{aligned}
& + (-0.199) \times (\text{COST1}) + (0.240) \times (\text{COST2}) + (0.750) \times (\text{COST3}) + (-0.846) \times (\text{COST4}) \\
& + (0.835) \times (\text{INC1}) + (0.499) \times (\text{INC2}) + (-0.022) \times (\text{INC3}) + (-0.157) \times (\text{INC4}) \\
& + (-0.111)
\end{aligned}$$

$$\begin{aligned}
Y \text{ (2년제)} &= (-0.399) \times (\text{SEX}) + (0.162) \times (\text{AGE}) + (-0.632) \times (\text{ADMI}) + (0.143) \times (\text{JOB}) \\
& + (-0.024) \times (\text{LICEN}) + (0.267) \times (\text{STUDY1}) + (0.051) \times (\text{STUDY2}) \\
& + (-0.284) \times (\text{STUDY3}) + (0.672) \times (\text{STUDY4}) + (-0.381) \times (\text{STUDY5}) \\
& + (-0.553) \times (\text{COST1}) + (5.843) \times (\text{COST2}) + (0.149) \times (\text{COST3}) + (-1.065) \times (\text{COST4}) \\
& + (0.766) \times (\text{INC1}) + (0.550) \times (\text{INC2}) + (-0.185) \times (\text{INC3}) + (-0.506) \times (\text{INC4}) \\
& + (-0.126)
\end{aligned}$$

$$\begin{aligned}
Y \text{ (4년제)} &= (-1.200) \times (\text{SEX}) + (-0.291) \times (\text{AGE}) + (0.462) \times (\text{ADMI}) + (0.169) \times (\text{JOB}) \\
& + (-0.378) \times (\text{LICEN}) + (0.549) \times (\text{STUDY1}) + (0.576) \times (\text{STUDY2}) \\
& + (-0.111) \times (\text{STUDY3}) + (-0.245) \times (\text{STUDY4}) + (-0.115) \times (\text{STUDY5}) \\
& + (0.259) \times (\text{COST1}) + (-0.549) \times (\text{COST2}) + (1.198) \times (\text{COST3}) + (-0.510) \times (\text{COST4}) \\
& + (0.999) \times (\text{INC1}) + (0.759) \times (\text{INC2}) + (0.274) \times (\text{INC3}) + (0.129) \times (\text{INC4}) \\
& + (0.185)
\end{aligned}$$

먼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교육훈련비용의 부담주체-기타 더미변수, 가구의 월평균소득 수준-100~199만원 더미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별은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대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있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보다는 기타 방법으로 부담할 경우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가구월평균 소득수준 중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 더미변수는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석해보면 기준이 되는 가구소득수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두었을 때,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력과 전공, 편입학 여부는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근로경험과 자격증 취득 역시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응답자들이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일 경우 직업교육훈련 이수 희망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과 가구 월평균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있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보다는 기타 방법으로 부담할 경우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 비용을 본인이나 가족, 기업체, 정부 등이 부담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른 모형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별 더미 변수는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 편입학여부, 일자리경험, 자격증 취득, 전공 더미, 가구월평균소득 더미 등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들이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을 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일 경우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별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대해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갖고 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 및 편입학 더미, 근로경험, 전공더미 및 교육훈련비용 부담주체 더미 등은 4년제 대졸예정자들이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 2년제 및 4년제 대졸예정자 각각에 대해 재학 중 근로경험이나 자격증 취득여부는 직업교육훈련 이수율 선택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근로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유무, 학력이나 전공 등은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이행하였을 때는 성별, 교육훈련비용의 부담주체, 가구 월평균소득수준이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교육훈련비용 부담주체 에서는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기업체, 정부가,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은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제 대졸예정자의 경우, 교육훈련비용의 부담주체와 가구 월평균소득수준이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있었다. 4년제 대졸예정자의 경우 성별과 교육훈련비용의 부담주체가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및 취업노력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대졸예정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근로경험 여부,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의 조건들이 직업교육훈련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과 자격증에 대한 교육투자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영(2002)과 김안국(2003)의 연구에서는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투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직업훈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ry et al.(1976) 및 Couch(1992)의 연구에서는 재직근로자와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투자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실업자, 전직희망자,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이상은(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와 20~24세 청년에게는 직업훈련이 취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이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활용자료 및 조사기간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본 부산지역 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6년 3/4분기 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 수 또한 2003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0년도의 취업자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부산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00년부터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02년도의 경제활동인구 변

화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2000년부터 2006년 3/4분기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하여,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와 20~24세 청년들에게는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이행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보고, 부산지역 2년제 이상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직업훈련교육의 희망여부에 대한 답변에 각각의 변수들을 대입하여 교차분석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요결정요인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교차분석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4년제 대졸예정자보다는 2년제 대졸예정자가, 전공 중에서는 공학계열 대졸예정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경험여부에서는 일자리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로경험 상의 종사상 지위를 비임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로 근로경험을 한 학생들의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로짓분석 결과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이수희망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이행하였을 때는 성별, 교육훈련비용의 부담주체, 가구 월평균소득수준이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교육훈련비용 부담주체에서는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기업체, 정부가,

가구 월평균소득수준은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직업교육훈련 이수률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예정자가 직업교육훈련 이수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학력이나 전공, 근로경험 여부와 자격증 취득 여부는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결정짓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년제 대졸예정자의 경우, 교육훈련비용의 부담주체와 가구 월평균소득수준이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있었다. 4년제 대졸예정자의 경우 성별과 교육훈련비용의 부담주체가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서는 2년제 대졸예정자의 경우 4년제 대졸예정자보다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실증분석 결과에서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는 학력 및 전공은 직업교육훈련 이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근로경험 여부나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의 취업준비 노력 또한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설문지 응답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희망 비율이 약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직업교육훈련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하

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약 40%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21%의 학생들의 교육훈련을 받더라도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점으로 볼 때, 대졸예정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년층 및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수요파악을 통해 이수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을 개설하여 청년층의 교육훈련 참여를 높여야 한다. 특히 지역 실정과 함께 성별, 훈련직종별, 훈련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개개인에게 다양하고 심층적인 훈련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부산지역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우선 부산지역 대졸예정자 수에 비해 응답자 표본수가 적어서 부산지역 대졸예정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수요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설문지 배포·회수과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 결측치가 많아서 각 문항별로 동일한 수의 표본이 사용되지 못한 점 등은 자료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 참고문헌 >

- 강순희·노홍성(2001),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3집 제2호.
- 김안국(2002), “교육훈련의 경제적 성과 :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5집 제1호.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집 제1호.
- 김우영(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 김주섭(2002), “재학 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류장수 외(2005), 『부산지역 중·장기 인력 및 훈련수요 전망』, 부산지방노동청 연구결과보고서.
- 박성재(2005), “청년층 취업준비 노력의 취업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200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2~2010』,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Vol.3 No.2.
- 이병희(2002), “청년층의 직업세계 정착과정과 경력형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Vol.2 No.1.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김주섭·박성재·류장수(2004), 『자격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돈(2005), “부산지역 인력수급현황”, 『부산지역 중장기 인력·훈련수요 전망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연구』 .
- 이상은(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제23권.
- 주수현 외(2004), 『부산지역경제구조분석』, 부산발전연구원.
- 채창균(2003), “대학생의 재학중 일자리 체험과 취업준비”, 『직업교육연구』 제22권 1호.
- 채창균 외(2004), 『청년층교육·훈련과 고용(I) -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현집 외(2005), 『SAS를 이용한 통계분석』, 박영사.
-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Couch, L, A.(1992), "New Evidence on the Long-term Effects of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 Light, A. "In-School Work Experience and the Returns to School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 (1) (2000) : 65-93.
- Perry, C. et al.(1976), *The Impact of Government Manpower Programs*,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imon, C. "Human Capital and Metropolitan Employment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 (1998) : 223-243.